

**Q** 저는 부산에서 양축가들에게 사료를 공급해 주면서 사양기술 상담에 응해주고 있는 제일제당(주) 사료판매과의 영업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몇일전에 제가 거래하고 있는 양돈장에 들렀다가 농장 주인으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농장주인의 말인즉슨 자신이 사육하고 있는 돼지중 몇 마리가 다른 돼지의 꼬리를 잘라 먹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서 걱정이라며, 이에 대한 예방방법과 치료방법은 없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와같은 일은 왜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저의 축산 지식으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할 수 없어 월간양돈에 문의하오니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제당 부산사료 판매과 원수영)

**A** 비육돈의 집단 사육중에 다른 돼지의 꼬리를 물어 뜯는 증상은 '식미증'이라고도 불리우며 일종의 나쁜 버릇의 상태이며 이는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비육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며 꼬리뿐만 아니고 귀도 물어 뜯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 피해돈은 상처를 통하여 화농성세균, 피사간균 및 곰팡이균등의 오염으로 척수염, 골수염 및 패혈증을 일으키는등의 2차적인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돼지는 선천적으로 사나운 버릇을 가진 어미에서 출생한 자돈의 유전적인 버릇도 있지만, 많은 예가 육성중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돼지가 자극상태에 빠져서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30~60kg의 비육돈중 주로 돈방에서 키우는 돼지에서 발생하는데 밀사, 환기불량, 급수부족 및 깔짚부족 등에서 오는 권태감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사료통 및 물통의 부족등으로 지근 돼지의 투쟁적 태세, 먼지가 많은 환경, 습도 과다, 온도의 급변, 돼지 이 및 옴의 기생, 체중의 격차가 심한 돼지의 수용등도 원인이 됩니다. 또 영양장애의 요인으

로서 단백질,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결핍으로 빈혈 상태인 때나 용혈성 연쇄상구균의 감염증, 옥도 결핍, 적색위충 및 개선충의 기생등으로 인한 빈혈등의 요인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요인은 자기 단일로서는 원인이 되지 않고 수종의 요인이 동시에 겹쳤을때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한 증상은 꼬리의 교상에 의해서 꼬리에서 출혈이 심하고 출혈이 되면 돼지들은 피에 대한 이상감을 느끼고 다른 돼지는 물론 피해돈 자신도 따라서 가해돈이 되어서 피해는 돈방 전체에 재빨리 번져서 한 돈방 전체가 피로 물들게 됩니다. 교상의 정도는 여러가지이지만 단순한 출혈만으로 치료되는 것은 드물고 대부분은 염증을 일으키어 환부가 붓고 그대로 방치하면 반복해서 물리게 되어 꼬리가 작아지고 드디어는 꼬리가 빠져 버리기도 합니다. 더우기 피해돈은 종종 세균의 2차감염을 일으키어 농양 또는 척수염을 일으켜 발육불량 및 후구마비의 원인이 되어 폐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돈의 치료 방법으로서 가해돈을 조기에 발견하여 제거·격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가해돈을 발견하기는 실제적으

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염증의 정도에 따라 일반적인 창상의 외과적인 치료를 하거나 염증이 심하여 화농한 것은 항생제를 주사하여야 합니다.

치료돈은 치료중에 다시 물리는 것을 막기 위해 창상과 소독의 가해돈의 기피작용을 목적으로 목탈과 옥도정기의 합제를 발라주면 2중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상을 받은 꼬리를 살짝 잘라 내버리기도 합니다.

예방방법으로서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제거해 주어야 하나 원인이 단일 요인이 아니어서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사양 환경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돈방내에 쇠고리 줄이나, 현 "타이어" 등을 매달아 돼지가 자유롭게 물어 뜯게 하고 깔짚을 충분히 넣어 주거나 또는 적게 매일 자주 넣어 주어 늘 자유롭게 씹게 하여 권태감을 없애게 해

주고 죽통(4-5두에 1개)이나 물통(20두에 1개)도 여유있게 설치하여 계속 급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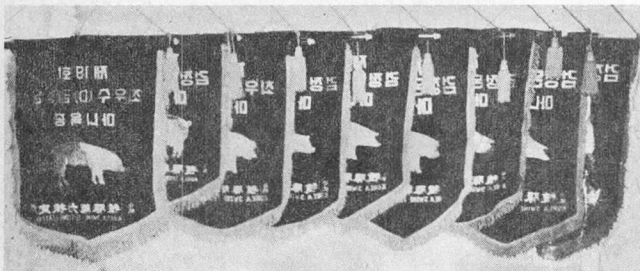
한 돈방에는 될 수 있는 한 동일 품종으로 일령 및 체중들이 같은 무리를 동거케 하고 영양 결핍시에는 철분, 옥도제의 투여와 단백질 함량의 증가, 혈분, 청초 및 흙등을 충분히 급여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단미(斷尾)방법이 권장되고 있어 미리 꼬리를 잘라서 물리는 대상을 없애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꼬리를 자르는 방법은 분만후 즉시 가급적 빨리 꼬리부를 2cm정도 두고 예리한 칼로 자르고 자른 부위를 불로 지지면 치료도 빠르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응답자 :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병독과장 김용희 박사)

## “과연! 종돈의 명문”



(대한양돈협회의 종돈능력검정소에서 받은 최우수 페난트 - 전국출품농장중 최다수상)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천호는 현재보다도 미래의 한국축산을 설계하며 더 칭찬받는 종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도봉구 광릉동 617-18  
 전 화 : 972-2907-9, 8101-2  
 종돈장 :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280  
 전 화 : 포천 (0357) 32-1103

분양종 : A. C. D라인 (D. Y. L) 및 PS (F1)